

# 悲劇小說로서의 *The Scarlet Letter*

梁 京 柱

## I

Nathaniel Hawthorne 은 *The Scarlet Letter* 를 쓰면서 文學形式으로서 悲劇을 염두에 두고, 그 作品을 悲劇小說(tragic novel)<sup>1)</sup>로 쓰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小說을 “romance”라고 부르면서, 그의 특유한 “romance”라는 文學形式을 통하여 “novel”이라는 形式에서는 얻어낼 수 없는 독특한 文學的 效果를 얻어내려 하였다.<sup>2)</sup> 그러나 그의 作品들, 특히 *The Scarlet Letter* 는 批評家들이 거이 예외없이 悲劇小說의 전형적 作品 중의 하나로 다루고 있듯이, 悲劇作品으로서 갖추어야 할 諸般 悲劇的 要素를 갖추고 있으며, 지금까지 Hawthorne 에 대한 研究도 그 主流를 이루어 온 主題論의 研究<sup>3)</sup>와 더불어 그를 “aspiring creator

- 
- 1) 文學形式으로서 悲劇(tragedy)란 用語는 어디까지나 戲曲(drama)에 한정되어 使用되고 있다. 그러므로 本稿에서는 Clifford Leech가 말한 “悲劇小說(tragic novel)”이란 用語를 使用하기로 한다. Leech는 悲劇의 特色은 戲曲 장르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tragic drama”의 主題나 構造에 상응하는 그러한 主題나 構造 등 悲劇으로서의 要素를 갖추고 있는 小說作品을 “悲劇小說(tragic novel)”이라고 부르고 있다. Clifford Leech, *Tragedy* (Methuen & Co. Ltd., 1969), pp. 30~31.
  - 2) Nathaniel Hawthorne, “The Custom House,” *The Scarlet Letter: An Annotated Text Backgrounds and Sources Essays in Criticism*, ed. Sculley Bradley, Richmond Croom Beatty, and E. Hudson Long. (New York: W.W. Norton & Company, Inc., 1962), pp. 30-31 참조. *The House of the Seven Gables: An Authoritative Text Backgrounds and Sources Essays in Criticism*, ed. Seymour R. Gross, (New York: W.W. Norton & Company, Inc. 1967), p.1 참조. 本稿의 論旨은 作品의 悲劇性에 있으므로 Hawthorne이 “romance” 樣式을 통하여 追求하려 했던 文學的 效果에 대해서는 論外로 한다.
  - 3) James Woodress, *Eight American Authors: A Review of Research and Criticism* (New York: W.W. Norton & Company, Inc., 1971), pp. 93-100.

of tragedy”라는 觀點에서 그의 作品에 접근하려는 研究傾向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sup>4)</sup>

지금까지 *The Scarlet Letter*를 悲劇小說이라는 觀點에서 그 作品에 접근하려 했던 批評家들의 接近傾向을 살펴보면, 그러한 傾向의 主眼點은 한마디로 말하여 作品의 悲劇性과 悲劇的 人間像, 다시 말하여 作家가 제시하려고 한 人間의 悲劇的 存在樣相을 Hester에게서 찾아내려고 하는 데 있었다. F. I. Carpenter를 예로 들면, 그는 *The Scarlet Letter*가 완벽한 悲劇(the tragedy of perfection)이 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 悲劇 속에서는 性格上的 어떤 불완전함(tragic imperfection)이나 人間의 柔弱함 때문에 悲劇的 破局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社會의 結定論의 皮할 수 없는 힘 때문에 생겨나고 있으며, 그 悲劇에는 理想的인 女性. Hester가 완고한 淸教徒의 道德의 傳統에 패배하도록 운명지어지고 있다고 말한다.<sup>5)</sup>

Richard B. Sewall의 경우도, 그는 그리스·히브리 悲劇傳統의 眞正하고도 중요한 特質이 기독교의 悲劇的 洞察力에 의하여 강화되어 Hawthorne과 Melville과 그리고 Dostoevski 속에 感動的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Hawthorne은 Hester에게 Antigone의 強靱한 性格과 Elizabeth 시대 사람들의 情熱과 個性을 부여하고 있고,<sup>6)</sup> Hester야말로 Zeus에게 대항하여 자신의 正義感(sense of justice)을 주장하는 Aeschylus 戲曲의 主人公 Prometheus처럼 분명하게, 社會가 그녀에게 強要하는 因習적이고 非人間的인 “dogma”에 감연히 對抗하여 자신의 價値를 주장하는 人物이라고 말하면서, Dimmesdale은 神을 찬미하며 宗教的 죽음을 맞이하나, Hester는 Dimmesdale의 죽은 후까지 살아남아 悲劇的인 삶(tragic existence)을 계속 營爲한다고 結末을 맺는다.<sup>7)</sup> 그러나 이처럼 Hester를 통하여 나타나는 悲劇的 人間像을 파악함으로써 作品의 悲劇性을 論하려 할 경우에는 과연 Hester가 그러한 人間의 悲劇的 存在樣相을 보여주는 비극적인 인물로서 적합한가 하는 悲劇人物로서의 문제와 더불어, J. C. Gerber가 “[In *The Scarlet Letter*] Hawthorne is not so concerned with what causes sin as with what sin causes.”<sup>8)</sup> 라고 말하고 있고, 또 Donald A. Ringe가 “This romance [*The Scarlet Letter*] develops the theme of the effect of evil upon men ....”<sup>9)</sup> 이라고 말하고 있듯이 Haw-

4) A.N. Kaul, ed., *Hawthorne: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66), p. 5.

5) Frederic I. Carpenter, *American Literature and the Dream* (New York, 1955), p. 66.

6) Richard B. Sewall, *The Vision of Traged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0), p. 3.

7) *Ibid.*, p. 90.

8) John C. Gerber, ed., *Twentieth Century Interpretations of The Scarlet Letter*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68), p. 10.

9) Donald A. Ringe, “Hawthorne’s Psychology of the Head and the Heart,” *Twentieth Century Interpretations of The Scarlet Letter*, ed. John C. Gerber, p. 69.

thorne이 *The Scarlet Letter* 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人間이 罪惡을 범하여 파멸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 아니라 罪惡의 결과 人間이 벗어날 수 없는 罪意識은 人間에게 어떠한 影響을 주게 되는가 하는 問題이므로, Hester 를 통하여 나타나는 人間의 悲劇的 存在樣相을 中心으로 作品의 悲劇性을 파악하려 할 경우에는 作品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作家의 意圖를 看過한 채 作品의 悲劇性을 論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생겨나게 된다.

따라서 필자는 먼저 悲劇의 本質과 그 屬性을 검토하여 이를 準據로 作品의 悲劇性을 論함으로써 作品의 悲劇性이 Hester 의 悲劇的 人間像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견해에 대하여 問題點을 提起·檢討하고, 나아가서 *The Scarlet Letter* 의 悲劇性이나 悲劇的 效果는 Dimmesdale의 精神的 苦惱와 그의 悲劇的 破局을 통하여 나타나며, 또한 이 作品은 悲劇小説로서 心理悲劇<sup>10)</sup> 이 되고 있음을 밝혀내려고 한다.

## II

文學藝術形式으로서 “悲劇(tragedy)”에 대한 論議는 Aristotle이 *The Poetics* 에서

A tragedy, then, is the imitation of an action that is serious and also, as having magnitude, complete in itself; in language with pleasurable accessories, each kind brought in separately in the parts of the work; in a dramatic, not in a narrative form; with incidents arousing pity and fear, wherewith to accomplish its catharsis of such emotions.<sup>11)</sup>

라고 悲劇을 定義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 까지 수많은 文人, 哲學者, 文藝批評家들에 의하여 계속되어 왔음에도, 時代와 論者에 따라 나타나는 觀點의 多樣性 때문에 아직까지도 悲劇의 本質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悲劇의 屬性에 대해서도 의견의 완전한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sup>12)</sup> 그 결과 “悲劇”이란 用語는 매우 다양한 意味를 갖게 되고 批評과 文學史에 있어서도 여러 方面에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는 形편이다.<sup>13)</sup>

10) 여기서 필자가 “心理悲劇”이란 用語를 쓰고 있는 것은, 運命悲劇(tragedy of fate)이 고대의 悲劇처럼 運命에 의하여 비극이 이루어지며, 性格悲劇(tragedy of character)은 Shakespeare의 劇처럼 주인공의 性格이 원인이 되어지고, 狀況悲劇(tragedy of situation)이 Ibsen이나 Strindberg의 劇처럼 社會的인 狀況이 人間의 意志와 葛藤을 일으켜 悲劇을 낳고 있음과는 달리, *The Scarlet Letter* 는 悲劇的 破국이 주인공의 心理的 罪意識에 의하여 야기되는 悲劇임을 보이기 위해서이다.

11) Aristotle, *The Poetics*, trans. Ingram Bywater (Oxford, 1909), Chapter VI.

12) Morris Weitz, “Tragedy,” *The Encyclopedia of Philosophy* ed. Paul Edwards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Inc.: 1967), Vol. 8, p. 160.

13) Hugh Holman, *A Handbook to Literature* (Indianapolis: Bobbs-Merrill Educational Publishing, 1980), p. 446.

悲劇의 意味와 적용범위 및 적용방법 상에 있어서 이러한 多樣性的의 결과, 戲曲 장르에 고유하게 적용되었던 悲劇이라는 概念이 小說 장르에 까지 확산, 적용하게 되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겠으나, 小說 作品의 悲劇性을 論함에 있어서 우리가 留意해야 할 점은 悲劇이라는 概念을 小說 장르에 까지 확대, 적용시켜 作品의 悲劇性을 論하려고 하는 批評家들의 概念適用 방법에는 대체로 비슷하여 공통적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C. Hugh Holman의 경우를 보면, 그는 悲劇이라는 用語를 小說이라는 장르와 연결시켜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In poetry and fiction, especially the novel, it refers to the effort of the work to exemplify what is often called "the tragic sense of life" that is, the sense that human beings are inevitably doomed, through their own failures or errors or even the action of their virtues, or through the nature of fate, destiny, or the human condition to suffer, fail, and die, and that the measure of a person's life is to be taken by how he or she faces that inevitable failure.<sup>14)</sup>

또한 Charles I. Glicksberg도 20세기 文學의 悲劇性을 論하면서 C. H. Holman이 말한 바와 같이 作品이 제시하고 있는 "the tragic sense of life"라는 관점에서 "小說이나 劇 作品이, 비록 궁극적으로는 무익한 것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人生에다 意味를 부여하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을 하고 있는 人間의 모습을 그려낼 때 悲劇의 世界像은 나타나게 된다"<sup>15)</sup>고 말하면서, 그러한 "悲劇的 世界像"이 나타나고 있는 作品을 悲劇 作品으로 보고 있다. 기타, 悲劇을 小說 장르에 적용시켜 다루고 있는 Richard B. Sewall이나 Murray Krieger도 역시 C. H. Holman이나 C. I. Glicksberg와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sup>16)</sup> 말하자면, 이들은 作品이 보여주고 있는 人間의 悲劇的 存在意味는 무엇인가 하는 主題論的 立場에서 作品의 悲劇性을 찾아내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이러한 小說 作品의 悲劇性에 대한 接近方法은 얼핏보면, 戲曲 作品의 悲劇性을 論할 때와는 接近方法이 상당히 다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된다. 왜냐하면, 悲劇 作品으로서 戲曲을 論할 때는 主題論이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悲劇 小說의 경우와 비교하여 본다면, 주로 悲劇의 주인공의 性格이나 悲劇의 效用 및 機能과 관련된 catharsis, 그리고 悲劇의 構造 등 性格論, 效用論, 構造論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밖

14) *Ibid.*, 446.

15) Charles I. Glicksberg, 「20세기 문학에 나타난 비극적 인간상」(서울: 종로서적, 1983), p.185.

16) Richard B. Sewall, pp. 1-8. Murry Krieger, *The Tragic Vision*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60), pp. 1-21 참조.

으로 나타난 것일 뿐이며, 또한 강조점의 차이일 뿐이라 하겠다. 그 이유는 한 예를 들면, R. B. Sewall 이 “The tragic vision impels the man of action to flight against his destiny, kick against the pricks, ...”<sup>17)</sup> 라고 말하고 있듯이, 作品에 나타나는 悲劇的 人間像은 바로 葛藤을 안고 투쟁을 벌이며, 자신의 세계의 고귀함을, 다시말하면 자신의 人生的 意義를 실천하려다 破滅에 이르는 人物을 통하여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며, 또한 입장을 바꾸어 戲曲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性格論이나 效果論이나 構造論은 결과적으로 悲劇의 主題論에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戲曲과 小說의 悲劇性을 이야기할 때 생겨나는 이러한 強調點에 있어서의 차이는 이 두 장르가 갖고 있는 提示方法(presentation)상의 차이 때문에 생겨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문제는 小說의 悲劇性을 말하려고 할 때처럼 主題論을 앞세워 悲劇性을 이야기하려 할 경우에는, 앞서 언급했듯이 悲劇의 本質이나 屬性이 무엇이나 하는 點에 대해서도 意見의 일치를 완전히 보고 있지 못하고 있고 또, “모든 悲劇에는 반드시 주인공이 있어야만 하며, 비극의 주인공들은 悲劇的 缺陷(tragic flaw)을 갖고 있어야만 하는가? 悲劇의 主人公들은 자신의 運命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만 하는가? 悲劇의 主人公들은 고통을 받아야만 하며 破滅하여 죽음에 이르러야만 하는가? 모든 悲劇的 主人公들은 위대함(greatness)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하는가? 悲劇의 結말은 불행으로 끝나야만 하는가? 悲劇은 우리들의 感情을 일깨워야만 하는가? 悲劇속의 일련의 事件은 必然的인 관계를 갖고 있어야만 하는가? 悲劇속에는 衝突과 葛藤이 있어야만 하는가? 悲劇은 catharsis를 행할 수 있어야만 하며, 觀客에게 통일된 어떤 反應을 일으킬 수 있어야만 하는가”<sup>18)</sup> 등 등의 문제도 아직 論議되고 있는 형편이어서, 자연히 主人公의 悲劇的 性格이나 作品의 悲劇的 構造 등, 기본적 悲劇의 要素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기에 바탕을 두고 悲劇性을 論하는 것도 아니어서 그렇지 않아도 亂脈相을 보이기 쉬운 悲劇性의 해석에 자칫 模糊性만을 덧붙이는 誤謬를 범할 여지가 존재하고 있다는 點이다.

筆者가 本稿에서 Clifford Leech의 견해, 즉 “tragic drama”의 主題나 構造 등에 상응하는 그러한 主題나 構造 등 悲劇으로서의 要素를 갖추고 있는 小說作品이 “tragic novel (悲劇小說)”<sup>19)</sup>이라는 그의 견해를 받아들여 悲劇小說의 概念을 限定하고, 悲劇의 本質과 屬性을 지금까지 批評家들이 대체로 意見의 일치를 보이는 限界내에서 몇몇 論者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綜合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The Scarlet Letter*의 悲劇性을 論하려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模糊함과 曖昧함이라는 誤謬를 排除하기 위해서 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물론 悲劇의 本質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여 비극의 본질을 새로이 밝히고 새로운 批評基準을 제시하며, 그에 따라 作

17) Richard B. Sewall, p. 5.

18) Morris Weitz, p. 160.

19) Clifford Leech, p. 31.

품의 悲劇性을 새로이 해석하는 일이 意義있고 바람직한 일일 것이나, 筆者의 생각으로는 悲劇性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批評基準을 내세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傳統的 悲劇批評基準에 의해서도 作品이 갖고 있는 悲劇性에 대하여 새로운 照明과 探究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悲劇에 대한 주요 批評理論을 검토·정리하려면 먼저 Aristotle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최초로 悲劇을 批評의 問題로 삼은 사람이며, 동시에 悲劇에 대한 古典的 批評理論이 그의 *The Poetics*에서 定立되어 오늘날까지 크게 修正됨이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Aristotle은 *The Poetics*에서 悲劇에 대하여 “悲劇은 진지하고도 일정한 길이를 가지고 있는 완결된 行爲를 模倣하는 것이며, 快適한 장식을 한 언어를 사용하고 각종의 裝飾은 각각 작품의 상이한 계부분에 삽입된다. 그리고 悲劇은 戲曲的 形式을 취하고 敘述的 形式을 취하지 않으며, 憐憫과 恐怖를 통하여 이러한 감정을 catharsis 한다”<sup>20)</sup>라고 말하면서 그의 悲劇論을 전개한다. 그의 주요 悲劇論을 살펴 보면 첫째, 悲劇의 主人公은 고귀한 신분의 人物이어야 하고 둘째, 그러한 주인공이 hamartia에 의하여 행운으로 부터 불행에 빠지는 사건을 다루어야 하며 셋째, 사건은 始初와 中間과 結末로 이루어지는 완결된 事件이어야 하며, 그 완결된 사건 속에서 고귀한 身分의 主人公이 불행에 이르게 되는 과정은 蓋然性과 心然性에 따라 사태가 반대 방향으로, 즉 행운에서 불운으로 변화하는 急轉과, 행운 혹은 불운에의 宿命을 가진 자들이 無知에서 知의 상태로 移行하는 發見이 수반되어야 하며, 發見은 急轉과 결합되어 憐憫과 恐怖의 감정을 환기하고, 환기된 憐憫과 恐怖의 感情은 catharsis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Aristotle의 古典的 悲劇論은 20세기에 들어오면서 強調點에서 상당한 多樣性을 보여주게 된다. Arthur Miller의 悲劇의 概念을 보면, 그는 Aristotle과는 달리 悲劇에서 주인공을 破局으로 이끄는 것은 고귀한 신분의 人物의 hamartia에 의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美德, 즉 개인의 高潔性의 肯定에 있다고 보며, 悲劇의 주인공은 자신의 價値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悲劇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人物들이며, 이 悲劇의 破局을 통하여 자신의 존엄과 고결성을 확인하려드는 人物이라는 것이다.

As a general rule, to which there may be exceptions unknown to me, I think the tragic feeling is evoked in us when we are in the presence of a character who is ready to lay down his life, if need be, to secure one thing—his sense of personal dignity.... Tragedy, then, is the consequence of a man's total compulsion to evaluate himself justly.... For, if it is true to say that in essence the tragic hero is intent upon claiming his whole due as a personality, and if this struggle must be total and without

20) Aristotle, Chapter VI.

reservation, then it automatically demonstrates the indestructible will of man to achieve his humanity<sup>21)</sup>

그러므로 Aristotle은 일차적으로 悲劇의 plot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Miller는 性格에 관심을 갖고 悲劇을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Francis Fergusson은 Aristotle의 plot란 말 대신에 目的・受難・知覺으로 이루어지는 “the tragic rhythm of action”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悲劇을 說明한다.

This movement, or tragic rhythm of action, constitutes the shape of the play [*Oedipus the King*] as a whole; it is also the shape of each episode, each discussion between principals with the chorus following....It is this tragic rhythm of action which is the substance or spiritual content of the play, and the clue to its extraordinarily comprehensive form.<sup>22)</sup>

Fergusson은 이 “悲劇의 行爲의 rhythm”을 통하여, 受難이 目的에 따라오려면 원래의 目的의 성취를 가로막아서 前狀況에 대한 새로운 理解, 어찌면 원래목적에 새로운 定義를 남게 할 어떤 葛藤, 어떤 反對, 어떤 곤란이 悲劇 속에 內在해 있음을 말하려 하고 있다.

Richard B. Sewall의 悲劇觀을 보면, 그는 悲劇을 惡, 고통, 그리고 價値간의 관계를 意味하는 것으로 보았다.<sup>23)</sup> 그의 주장은 悲劇의 주인공은 어떠한 댓가를 치르더라도 自己自身の 존엄성을 주장해야 한다는 Miller의 주장과 흡사한데, 그는 悲劇의 본질을 價値의 肯定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Miller가 그러한 價値의 肯定을 主動人物 個人 속에서 찾고 있다면, Sewall은 宇宙 속에서 가치의 肯定을 찾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Miller가 性格을 강조하고 있다면 Sewall은 테마를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끝으로 Susanne K. Langer의 悲劇의 概念을 살펴 보면, 그는 悲劇의 本質을 “As comedy presents the vital rhythm of self-presentation, tragedy exhibits that of self-consummation”<sup>24)</sup>이라고 말한다. 이 “悲劇의 리듬”은 근본적으로 상반되는 요소의 葛藤, 對峙, 또는 서로 모순되는 행위나 현상의 긴장관계에서 우러난다. 悲劇의 葛藤은 理性和 意志, 善과 惡, 한가지의 善과 다른 善사이의 상반되는 행동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悲劇의 主人公은 딜레마에 놓이게 되고, 이러한 가운데 그의 투쟁 또는 悲劇의 葛藤은 정신적 형이상학적 차원으로 高揚됨으로써 Aristotle이 말하는 憐憫과 恐怖의 비극적 情緒를 자아내게 된다. 이와같은

21) Arthur Miller, “Tragedy and Common Man,” *The New York Times*, February 27, 1949, sec. 2, reprinted in *Tragedy: Plays, Theory, and Criticism*, ed. Richard Levin (New York: Harcourt, Brace, 1960).

22) Francis Fergusson, *The Idea of a Theater* (Garden City, N.Y.: Doubleday Anchor Books, 1953), p. 31.

23) Richard B. Sewall, pp. 44-49.

24) Susanne K. Langer, *Feeling and Form* (Routledge & Kegan Paul, Ltd., London, 1967), p. 351.

文祥譯, “셰익스피어 悲劇의 性格發展과 性格展開,” 『영어영문학』, Vol. 27 No. 2, pp. 214 - 15에서 재 인용.

비극적 긴장이 論理的이면서 因果律的인 연속과 발전이 바로 “悲劇의 리듬”이 된다.<sup>25)</sup>

이러한 여러가지 悲劇의 概念을 검토해 볼 때, 이들의 悲劇의 定義 속에는 葛藤과 고통, 自覺과 배움, 그리고 鬭爭이라는 요소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C. Carter Colwell도 悲劇의 屬性으로서 고통(suffering)과 배움(learning)과 투쟁(struggle)이라는 세 요소를 포함시키면서 文學形式으로서 悲劇이란 歷史에 실제로 일어났던 事件과는 관련이 없는 가공적이며, 그 자체가 構造的 패턴을 지닌 한 藝術形式으로서 그 속에서는 한 人物이 크게 고통받는 사건, 그가 자신의 참상을 깨닫고 있으며, 그것으로부터 배우며 意識하며 고통받는 사건, 그리고 자기의 그 고통의 원인과 鬭爭을 벌이는 사건과 인물을 다루는 文學形式이라고 말하고 있다.<sup>26)</sup> 이말은 결국 主題論의 입장에서 悲劇에 접근하려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tragic vision of life”도 이러한 사건과 인물, 즉 한 인물이 크게 고통받는 사건, 그 인물이 그 고통을 통하여 自覺과 배움에 이르게 되는 사건, 그리고 그 사건 속에서 그 고통의 원인과 鬭爭을 벌이는 人物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말이 되겠다. 따라서 필자는 주로 悲劇의 보편적이며, 공통적인 속성이 되고 있는 이 세가지 요소, 즉 고통(suffering)과 배움(learning)과 투쟁(struggles)을 悲劇의 人物이나 事件을 論하는 基準으로 삼아 *The Scarlet Letter*의 悲劇性을 論하려 한다.

### III

필자는 앞서 *The Scarlet Letter*를 悲劇小說이라는 관점에서 作品의 悲劇性을 이야기할 때는 주로 Hester를 悲劇의 人物로 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임을 말했다. 그러나 Hester를 悲劇의 人物로 놓고 그의 性格을 검토하고 그녀가 겪게되는 사건을 검토해 보면 그녀가 과연 悲劇의 人物로서 적합한 인물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할 餘地를 쉽게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질문은 말을 바꾸어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녀는 과연 비극적 人物로서 葛藤과 고통을 겪고 있으며, 그 고통속에서 자신의 참상과 인간과 우주에 대한 어떤 眞理를 깨닫고 있으며, 善 또는 어떤 價値를 실현하기 위하여 鬭爭하고, 마침내는 破局에 이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質問에 대한 대답은 일차적으로 부정에 가깝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The Scarlet Letter*를 읽었을 때 그녀를 悲劇의 人物로 곧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은, 첫째 그녀의 世界가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淸教徒의 社會와 대립관계를 이루고 있어서 이 양자간에 葛藤과 衝突을 일으키는 사건이 作品의 plot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

25) 文祥得, “세익스피어 悲劇의 性格發展과 性格展開,” p.215.

26) C. Carter Colwell, *A Student's Guide to Literature* (New York: Washington Square Press, 1968), p. 63.



하는 데 있으며, 둘째로는 Hester가 그녀와 대립하여 葛藤을 벌이고 있는 청교도의 道德律에 의하여 희생된 悲劇的 犧牲者로 보는 데서 생겨나고 있다. 그러므로 Hester의 悲劇性的 문제를 먼저 이 두가지 문제와 서로 연결시켜 檢討해보기로 한다.

먼저 plot의 측면에서 보면, *The Scarlet Letter*에는 대립되는 힘이 作品 처음에서 부터 作品이 끝날 때까지 분명히 存在하고 있다. 그 하나의 힘은 作品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植民地 時代의 美國, New England 清教徒社會의 완고한 道德傳統이며, 이에 맞서고 있는 또 하나의 힘은 清教徒의 秩序에 대하여 “natural law”에 의한 自然道德秩序를 내세우는 Hester의 行動倫理이다. 이 양자는 한치의 양보나 타협이 없이 서로 自身의 世界를 주장한다. 그 결과 Hester는 자신의 행동원리에 따라 清教徒의 입장에서 보면 罪惡으로 나타나는 姦通을 저지르게 되고, 자신의 Dimmesdale과의 행위가 “神聖한 것이다”고 주장하게 된다. 이에 반하여, 清教徒社會는 清教徒의 戒律에 따라 Hester를 처형대에 올려세워 姦通의 罪를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 내 보이도록하며 일생동안 姦通을 의미하는 “주홍글자 A”를 가슴에 달고 살아가도록 처벌을 가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은 얼핏 생각하면 *The Scarlet Letter*의 plot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나,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 양자의 對立과 투쟁에 의하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은 단지 作品의 최초의 사건, 즉 Hester가 Pearl을 가슴에 안고 감옥을 나와 처형대에 올라서서 姦通을 의미하는 恥辱의 象徵인 “주홍글자 A”를 모든 사람들에게 내보이게 되는 사건 뿐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作品의 plot라는 측면에서 단지 최초의 상황, 즉 앞으로 분쟁과 사건의 조짐을 보이는 發端部의 사건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外的 事件을 가지고는 作品의 plot를 설명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일부 批評家들은 作品의 構造가 세개의 처형대 장면에 의하여 짜여져 있다<sup>27)</sup>고 말하기도 하며, 또 일부 論者들은 作品의 이러한 plot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Hawthorne은 plot을 “structure of action”이라는 전통적 의미에서 보고 있지 않고, scene들의 연속으로 보고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sup>28)</sup>

또 다른 한편에서, 대립되는 두힘, 즉 청교도 사회의 道德律과 “natural law”에 의한 自然道德으로 나타나는 Hester의 세계 사이의 對立과 葛藤 그리고 鬭爭을 보더라도, 제3장 Recognition의 처형대 장면에 이르러서 대립과 갈등은 정점에 달하나 그 이후 양자간의 대립은 균형이 파괴되어, 양자간의 葛藤이나 鬭爭에 의한 직접적인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Hester는 물론 자신의 행위의 高潔함이나 자신의 세계의 정당함을 포기하지는 않으나, 제17장 The Paster and His Parishioner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抑壓되고 체념한 상태에서 자신의 주장이나 욕구가 Pearl에게 화려한 옷을 입히려는 충동에서 조금씩 나타날 뿐 바느질일과 빈민을

27) Terence Martin, *Nathaniel Hawthorne* (New Haven, Conn.: College & University Press, 1965), pp. 115-16.

28) 朴翹斗, 「多様을 위한 變貌: Hawthorne의 藝術의 原理와 實際」(서울: 翰信文化社, 1982), pp.168-69.

위한 구개사업속에 抑制되고 있어서 그 모습은 참회의 모습이며, 정신적 昇華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까지 한다.

In this matter of Hester Prynne, there was neither irritation nor irksomeness. She never battled with the public, but submitted uncomplainingly to its worst usage; she made no claim upon it, in requital for what she suffered; she did not weigh upon its sympathies. Then, also, the blameless purity of her life, during all these years in which she had been set apart to infamy, was reckoned largely in her favor. With nothing now to lose, in the sight of mankind, and with no hope, and seemingly no wish, of gaining any thing, it could only be a genuine regard for virtue that had brought back the poor wanderer to its paths.

None so self-devoted as Hester, when pestilence stalked through the town. In all seasons of calamity, indeed, whether general or of individuals, the outcast of society at once found her place. She came, not as a guest, but as a rightful inmate, into the household that was darkened by trouble; as if its gloomy twilight were a medium in which she was entitled to hold intercourse with her fellow-creatures. There glimmered the embroidered letter, with comfort in its unearthly ray. Elsewhere the token of sin, it was the taper of the sickchamber. It had even thrown its gleam, in the sufferer's hard extremity, across the verge of time. It had shown him where to set his foot, while the light of earth was fast becoming dim, and ere the light of futurity could reach him. In such emergencies, Hester's nature showed itself warm and rich; a well-spring of human tenderness, unfailing to every real demand, and inexhaustible by the largest. Her breast, with its badge of shame, was but the softer pillow for the head that needed one. She was self-ordained a Sister of Mercy; or, we may rather say, the world's heavy hand had so ordained her, when neither the world nor she looked forward to this result. The letter was the symbol of her calling. Such helpfulness was found in her, — so much power to do, and power to sympathize, — that many people refused to interpret the scarlet A by its original signification. They said that it meant Able; so strong was Hester Prynne, with a woman's strength.<sup>29)</sup>

John C. Gerber 는 이러한 Hester 의 변화를 “from resentment to acquiescence”<sup>30)</sup> 라는 말을 사용하여 表現하고 있는데, Gerber 의 이러한 표현도 Hester 의 이러한 葛藤과 鬭爭의 결핍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문제, 즉 Hester 가 悲劇의 犧牲者나 하는 문제도 역시 많은 批評家들이 그녀를 “완전한 道德傳統”에 의한 犧牲者나,<sup>31)</sup> “社會因習에 의한 희생자(a victim of social convention)”나<sup>32)</sup> 하고 있으나, Hester 는 희생자로서 “pathetic victim”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tragic

29) Nathaniel Hawthorne, *The Scarlet Letter*, pp. 116-17.

30) John C. Gerber, ed., *Twentieth Century Interpretations of The Scarlet Letter*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68), p. 8.

31) F. I. Carpenter, p. 36.

32) Regis Michaud, “Freud and the Triangle,” *The Scarlet Letter: Nathaniel Hawthorne* ed. S Bradley, R. C. Beatty, and E. H. Long (New York: W.W. Norton & Company, Inc., 1962), p. 256.

victim”은 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녀가 悲劇의 犧牲者가 되고 있지 못 함은, 자신의 信念을 지키고 실천하기 위하여, 또는 자신의 人生이 설사 無意味하다고 생각된다 하더라도 자신의 삶에 意味를 부여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투쟁을 벌이며, 그 결과로서 고통을 당하며,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하여 人生과 宇宙에 대한 意味를 발견하며, 끝내는 불행이나 파국에 이르고 있지 못하는 데 있다. Hester는, 앞서 언급했 듯이, 제 3장 Recognition을 고비로 그녀의 慾求實現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에 대하여 아무런 저항을 보이지 않으며, 諦念한 상황하에서 그 제약을 받아들인다. 다시 말하면, Hester는 淸教社會가 그녀에게 강요하고 있는 淸教道의 道德律을 부정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그것을 超越하고 있을 뿐이다. 다만, 그녀가 저항하고 고통을 당하며 투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은 그녀가 결코 자신의 信念을 포기하는 일이 없이 억누른 채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Hester가 자신의 信念을 굽히지 않은 채 그녀의 욕구를 가로막고 있는 障礙物에 도전을 했었다면 아마도 그녀는 “the leader of a feminist movement”로 나타나게 되었을 것이다.<sup>33)</sup>

그녀의 破局의 문제에 대하여도 그렇다. 그녀를 悲劇의 주인공으로 볼 경우 作品은 happy ending으로 끝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치더라도 결코 비극적 불행한 結末로 끝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作品의 이러한 결말에 대하여 Leland Schubert는 말하기를 *The Scarlet Letter*가 가장 아름답고 藝術的인 特徵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제 24장 Conclusion은 作品의 構造의 일부로서는 걸맞지 않은 부분이며, 이 부분을 제거해야 作品은 이야기의 구조가 선명하고 아름답게 된다<sup>34)</sup>고 말하고 있는데, 그의 이러한 말도 제 24장은 happy ending에 가까운 melodramatic한 要素를 제공하여 大團圓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며, 作品의 悲劇的 效果를 흐려놓고 있음을 지적한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悲劇的 人物로서 Hester를 말하라 한다면, 첫번째 처형대 장면에서 그녀가 恥辱을 드러내 보이는 데서 그녀의 悲劇的 면모가 완벽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거기에서 悲劇的 人物로서의 Hester는 사라지고 만다 하겠다. 처형대에서 恥辱의 象徵인 “주홍글자 A”를 드러내 보이기까지의 과정은 한 여자로서는 도저히 견디어 낼 수 없는 고통의 과정이었으며,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하여 그녀는 저항하고 투쟁함으로써 자신의 행위, 즉 Dimmesdale과의 姦通이라는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가 오히려 “神聖하다”는 意味를 부여하고 있으며, 사회속에서의 人間의 存在意味를 깨닫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순간이야말로 한 인간에게 내려진 파멸의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The Scarlet Letter*의 悲劇的 主人公은 누구이며, 悲劇性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

33) J. C. Gerber, p. 11.

34) Leland Schubert, “The Frame Structures,” *Twentieth Century Interpretations of Scarlet Letter*, ed. John C. Gerber, p. 53.

는가?

필자는 먼저 Hester가 悲劇的 주인공이 되지 못함을 여러가지로 제시하면서 그녀와 淸教徒 社會의 대립에 의한 사건은 첫 처형대 장면에서 그녀가 恥辱을 당하게 되는 사건 뿐이어서 이 양자간의 對立과 葛藤에 의한 사건에 의하여 作品의 plot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을 말했다. 한편 관점을 달리하여 생각하면, Hester와 淸교도 사회의 대립의 결과로서 사건이 일어나고 있지도 않으며, 또 그러한 사건에 의하여 plot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왜냐하면, Hawthorne이 이 作品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J. C. Gerber와 D. A. Ringe가 말하고 있듯이, 무엇이 罪惡을 낳게 되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罪惡이 무엇을 낳게 되는가 하는 문제, 다시 말하면 단순한 悲劇的 사건을 다루려 했다가 보다 罪의 결과가 인간에게 心理的으로 어떠한 影響을 주게 되느냐 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sup>35)</sup> 그러므로 作品의 悲劇的 人物이나 構造도 이 作品이 罪意識이 人物들에게 미치는 心理的 影響이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心理小說이라는 觀點에서 再考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作品의 悲劇性도 동일한 방향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The Scarlet Letter*가 罪意識이 인간에게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탐구한 心理小說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罪意識의 문제는 Hester에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녀는 단 한번도 罪意識을 느끼거나 罪意識에 사로잡혀 본 일이 없기 때문이다. 실사 그녀가 Pearl을 보며 “She [Hester] knew that her deed had been ill; she could have no faith, therefore, that its result would be for good”<sup>36)</sup>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社會的 觀點에서 자신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일 뿐이며, Dimmesdale과의 姦通이라는 행위에 대하여 Dimmesdale에게 “What we did had a consecration of its own ....”<sup>37)</sup> 이라고 말하고 있듯이 그녀는 언제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神聖하다”는 확신을 처음부터 끝까지 갖고 있는 것이다. Chillingworth의 경우는 그의 罪意識이 애매모호하다. 왜냐하면 그는 분명히 Dimmesdale과 Hester에 대한 그의 행위가 罪惡이 됨을 알고 있을 것이나 罪意識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作品의 시작에서 끝까지 아무런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오직 Dimmesdale만이 죄를 意識하며, 罪意識에 사로잡혀, 그 결과 정신적 육체적 破局에 이르게 되는 인물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The Scarlet Letter*가 罪의 결과, 그 影響에 대한 探究를 위한 作品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 이야기는 당연히 Dimmesdale의 이야기가 될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게 된다.

그렇다면, *The Scarlet Letter*가 心理小說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Dimmesdale은 悲劇的

35) J. C. Gerber, p. 9.

36) Nathaniel Hawthorne, *The Scarlet Letters*, p. 66.

37) *Ibid.*, p. 140.

人物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리고 Dimmesdale 을 통하여 作品의 悲劇性을 論할 수 있을 것인가?

心理小説이라는 관점에서 Dimmesdale 에게 초점을 맞출 경우, Dimmesdale 이야말로 葛藤을 겪고 있는 人物이며 고통속에 처해 있는 人物이라는 사실은 곧 드러나게 된다. 다만, 그의 葛藤과 고통은 Hester 의 경우와는 달리 外的葛藤과 사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心內的인 것이어서 內的葛藤이며 心的, 精神的 苦痛이 되고 있을 뿐이다. 그의 갈등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卑怯함 때문에 그를 따르는 信徒들과 그가 사랑하는 Hester 사이를 방황해야 하는 愛憎의 心理的 葛藤이다. 그러한 心理的 葛藤은, Terence Martin 이 말하고 있듯이, 反對感情併存 형태로 나타나서 그를 위선자로 몰고가며 위선자의 양심은 자신에게 끝없는 정신적, 육체적 試練과 苦痛을 가하게 된다.<sup>38)</sup>

또한 Dimmesdale 은 자신의 罪意識과 僞善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신과 끝없는 鬪爭을 계속하는 인물이며, 그 고통을 통하여 그 자신과 宇宙의 意味를 확인하는 인물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마침내 徹夜祈禱에서 부터 시작하여 한밤중의 처형대 위에서의 告白 등 자신의 僞善과의 투쟁이 또 하나의 僞善과 虛僞로 끝나게 되고 아무런 위안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며, 온갖 고통과 시련 끝에 마침내 그는 그가 愛憎의 感情을 갖고 보고 있었던 Hester 와의 사랑은 그가 그녀와 사랑을 나눌 그 때에 품고 있었던 信念, 즉 그들의 행위에는 “神聖”을 띠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인물이 된다. 이와 더불어 Dimmesdale 은 森通에 대한 罪意識과 心理的 愛憎의 결과로 저지르게 되는 또 하나의 罪惡, 즉 僞善의 罪가 가져다 주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며, 동시에 자신의 Hester 와의 사랑의 행위가 神聖함을 입증함으로써 그가 그 때까지 자신과 투쟁했던 그의 苦痛과 生의 意味를 확인하는 길은 Hester 와 아무도 모르는 未知의 땅이나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지낼 수 있는 유럽대륙으로 도망쳐 나가는 길이 아니라 오직 Hester 와 함께 처형대에 올라서서 고백하여 자신이 바로 Hester 의 森夫였음을 백일하에 드러내는 길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인물이 되고 있다. 이러한 자각을 통하여 그는 자신이 人間으로서의 存在意味를 확인하게 되며, 7년이란 오랜 세월동안 계속되어 온 자신의 고통스러운 투쟁이 드디어 승리했음을 확신한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예감하면서도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By bring me hither, to die this death of triumphant ignominy before the people! Had either of these agonies been wanting, I had been lost for ever!”<sup>39)</sup> 라고 말하게 된다.

Dimmesdale 은 또한 자신의 죄를 처형대에서 고백하는 극적인 순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破局속의 人物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Dimmesdale 의 이 죽음은 자신의 生의 意義를 확인하려는 고통스럽고도 끈질긴 자신의 僞善과의 투쟁의 결과로 그에게 주어지고 있는 悲劇的 破局

38) Terence Martin, p. 115.

39) Nathaniel Hawthorne, *The Scarlet Letter*, p. 182.

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Dimmesdale을 悲劇의 주인공으로 보면, *The Scarlet Letter*는 한 인간이 罪와 罪意識의 결과 破局에 이르게 되는 心理悲劇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J.C. Gerber가 Hawthorne을 “a student of human psychology”<sup>40)</sup>라고 부르면서 “In his insight into the enormous complexities of the human psyche,... Hawthorne speaks directly to our own age”<sup>41)</sup>라고 말하고 있듯이 Hawthorne은 우리에게 人間心理의 世界를 열어놓고 있는 것이다. Hawthorne이 사용한 “romance”라는 文學樣式도 그가 “inner or psychological truth”를 보여 주는데, 다시 말하면 인간의 內面心理世界를 그리는 데 적합한 文學樣式이라 하겠다.

따라서 作品을 구성하고 있는 plot도 인물과 인물간에 생겨나는 外的葛藤에 의한 사건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Dimmesdale 자신의 心理世界 속에 내재해 있는 心理的 葛藤에 의하여 일어나는 그의 心理的 機制와 心理的 갈등에 의한 그의 정신적, 육체적 파멸이라는 사건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Dimmesdale의 심리적 갈등과 그의 心理機制와 心理的 변화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破滅이라는 心理的 觀점에서 作品의 悲劇의 構造, 즉 고통(suffering)과 배움(learning)과 투쟁(struggle)을 거쳐 破局에 이르게 되는 과정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제 1장 The Prison-Door에서 제 3장 Recognition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Hester의 밖으로 드러나는 姦通事件의 결과를 묘사하면서 姦通事件에 대한 그녀의 心理的 態度를 보여 주며, Dimmesdale과 Chillingworth를 등장시켜 갈등의 조짐을 보여 준다. 또한 앞으로 전개될 사건이 어떤 류의 사건이며 Dimmesdale의 갈등이 어떤 류의 것이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기타 등장인물들이나 사건의 배경들과 아울러 보여 주고 있다. 이 발단부에서 Dimmesdale은 Hester가 姦通의 결과 처형대에서 처벌받는 사건을 통하여 “外傷的 體驗”을 하게 됨으로써 “現實不安”<sup>42)</sup>을 느끼게 되며, 그가 理想主義的 목사라는 데서 “道德的 불안”<sup>43)</sup>을 느끼는 人物로 나타난다. 그것은 바로 그에게 커다란 정신적 고통의 실마리가 되고 있다.

제 4장 The Interview에서 제 12장 The Minister's Vigil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제 1 전개·갈등부가 된다. 外形的 사건은 배제되고 주로 제 3장 Recognition에서 Dimmesdale이 자신이 姦夫임을 감추고 Hester에게

40) J. C. Gerber, p. 9.

41) *Ibid.*, p. 14.

42) Calvin & Hall, 「프로이드 心理學入門」 trans. 이용호(서울:백조출판사, 1974), p.98. “현실불안”은 외부세계에 있는 위협을 지각하는 데서 생기는 고통 감정의 체험이며, 그 위협은 우리를 해치고자 위협하는 환경상태이다.... 이러한 불안에 의하여 압도되는 체험을 外傷的 體驗이라 부른다.

43) *Ibid.*, p.99. 도덕적 불안의 경우에는 위협이 근원이 초자아의 체계인 양심에 있다. 우리는 理想我의 표준에 어긋나는 짓을 하거나 생각하거나 해서 양심에 의해 처벌 되기를 두려워 한다. 다시 말하면 자아가 죄악감 또는 수치감으로 체험하는 도덕불안은 양심이 위협을 지각하는 데서 일어난다.

“Hester Prynne...” “thou hearest what this good man says, and seest the accountability under which I labor. If thou feelest it to be for thy soul’s peace, and that thy earthly punishment will thereby be made more effectual to salvation, I charge thee to speak out the name of thy fellow-sinner and fellow-sufferer! Be not silent from any mistaken pity and tenderness for him; for, believe me, Hester, though he were to step down from a high place, and stand there beside thee, on thy pedestal of shame, yet better were it so, than to hide a guilty heart through life. What can thy silence do for him, except it tempt him—yea, compel him, as it were—to add hypocrisy to sin? Heaven hath granted thee an open ignominy, that thereby thou mayest work out an open triumph over the evil within thee, and the sorrow without. Take heed how thou deniest to him—who, perchance, hath not the courage to grasp it for himself—the bitter, but wholesome, cup that is now presented to thy lips!”<sup>44)</sup>

라고 말하면서 드러내기 시작한 그의 僞善의 모습이 自己虐待와 現實歪曲과 심리적 불안과 공포 등 다양한 心理機制로 나타나서 心理的 苦痛속의 Dimmesdale의 모습을 더욱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Chillingworth를 등장시켜 Dimmesdale에게 外的 葛藤을 첨가시킴으로써 Dimmesdale의 고통이 더욱 커져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Dimmesdale의 이러한 자기 자신의 僞善과의 갈등과 투쟁을 제일먼저 “現實逃避”라는 형태로 나타낸다. Dimmesdale은 교회에서 信徒들을 만나는 것을 제외하고는 혼자 疎外되어 숲속을 거닐면서 불안과 고통 속에서 기도하고 속죄를 하게 된다. Dimmesdale은 다소나마 이 現實逃避, 즉 문제의 상황에서 자신을 疎外시킴으로써 문제가 해결되어버린 것과 같은 심리적 만족감을 얻게 된다.

그러나 금극적으로 現實逃避는 그에게 아무런 정신적 보상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따라서 그는 자신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가함으로써 죄책감이 가져다 주는 苦痛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masochist가 되고 만다. 이 masochism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罪에 대하여 자신을 懲罰하는 자로 나타나서 자신을 스스로 학대하고 증오함으로써 만족감을 어느 정도 느끼게 된다.

His inward trouble drove him to practices, more in accordance with the old, corrupted faith in Rome, than with the better light of the church in which he had been born and bred. In Mr. Dimmesdale’s secret closet, under lock and key, there was a bloody scourge. Oftentimes, this Protestant and Puritan divine had plied it on his his own shoulders; laughing bitterly at himself the while, and smiting so much the more pitilessly, because of that bitter laugh. It was his custom, too, as it has been that of many other pious Puritans, to fast,—not, however, like them, in order to purify the body and render it the fitter medium of celestial illumination,—but rigorously, and until his knees trembled beneath him, as an act of penance. He kept vigils, likewise, night after night, sometimes in

44) Nathaniel Hawthorne, *The Scarlet Letter*, p. 52.

utter darkness; sometimes with a looking-glass, by the most powerful light which he could throw upon it. He thus typified the constant introspection wherewith he tortured, but could not purify, himself.<sup>45)</sup>

이 제 1 전개·갈등부에서도 Dimmesdale 은 또 하나의 外傷的 體驗을 하게 된다. 그것은 Chillingworth 가 Hester 의 전남편으로서 복수를 노리며 Dimmesdale 과 한 집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이다. 이러한 外傷的 體驗의 결과 생겨나는 현실불안은 道德的 不安과 복합되어 고통과 투쟁 속의 Dimmesdale 을 보여 주며, 그의 불안과 고통은 다시 現實을 歪曲케 하며 그를 僞善者로 몰고가서 끝내는 Dimmesdale 로 하여금 한밤중에 처형대 위에 올라서서 부분적으로 참회케 함으로써 그의 정신적 고통은 최고조에 달하게 된다.

제 13 장 Another View of Hester에서 시작하여 제 22 장 The Procession 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제 2 전개·갈등부로서 제 1 전개·갈등부에 이어 現實不安과 道德不安이 여전히 그를 감싸게 되며, 그러한 상황하에서도 여전히 僞善的 現實歪曲과 合理化의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마침내는 제 17 장 The Pastor and His Parishioner 에 이르러 Hester 를 통하여 Dimmesdale 이 罪意識을 가지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Hester 와의 사랑의 행위가 결코 최악이 아니라, 神聖을 띄고 있는 숭고한 행위임을 깨닫게 됨으로서 罪意識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며, 제 18 장 A Flood of Sunshine 에 이르면 그녀를 통하여 그의 모든 고통과 처절하면서도 欺騙的인 罪意識과의 투쟁이 바로 罪意識의 억압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自覺함으로써 罪意識의 억압에서 해방된다.

“Thou wilt go!” said Hester calmly, as he met her glance.

The decision once made, a glow of strange enjoyment threw its flickering brightness over the trouble of his breast. It was the exhilarating effect—upon a prisoner just escaped from the dungeon of his own heart—of breathing the wild, free atmosphere of an unredeemed, unchristianized, lawless region. His spirit rose, as it were, with a bound, and attained a nearer prospect of the sky, than throughout all the misery which had kept him grovelling on the earth. Of a deeply religious temperament, there was inevitably a tinge of the devotional in his mood.

“Do I feel joy again?” cried he, wondering at himself. “Methought the germ of it was dead in me! O Hester, thou art my better angel! I seem to have flung myself—sick, sin-stained, and sorrow-blackened—down upon these forest-leaves, and to have risen up all made anew, and with new powers to glorify Him that hath been merciful? This is already the better life!<sup>46)</sup>

45) *Ibid.*, p. 105.

46) *Ibid.*, pp. 144-45.



Dimmesdale의 이러한 억압에서의 해방에 대하여 Régis Michaud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Once freed from repression and anxiety, Dimmesdale reveals himself to be a new man, a man in the full sense of the word for the first time, and now he cares neither for his fears nor for Chillingworth who has exploited them. The true healer of Dimmesdale is not Chillingworth, it is Hester Prynne.<sup>47)</sup>

여기에서 Dimmesdale은 자신의 행위와 存在意味에 대한 새로운 세계와 그 가능성을 깨닫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또 하나의 투쟁을 시작한다. 그러나 제 23장에 이르면, 이러한 새로운 生의 意味를 실현하려는 그의 의도는 그 자신이 Chillingworth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며, 자신의 삶과 Hester와의 사랑에 價値, 즉 高貴함을 부여할 수 있는 길은 未知의 땅으로 逃避하는 길이 아니라 오직 Hester와 함께 처형대에서 그 자신이 Hester의 姦夫였음을 백일하에 드러내는 길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됨으로써 大逆轉이 일어나며, 결국 그는 죽음이라는 破局속으로 뛰어들게 된다. 그러므로 그의 죽음은 Richard B. Sewall이 말하는 “神을 讚美하며 안이하게 숨을 거두는 그러한 죽음”<sup>48)</sup>은 결코 아니다. 그의 죽음은 그의 生에 價値實現을 위하여 스스로 맞이한 죽음이며, 그의 고통과 투쟁의 결과로서 그에게 주어지고 있는 悲劇的인 죽음이 되고 있다.

제 24 장은 melodramatic한 要素를 갖고 있으나 Dimmesdale을 作品의 主動人物로 볼 때 大團圓의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복수의 化身, Chillingworth도 Dimmesdale이 세상을 떠나게 되자 生의 의욕을 잃고 죽음에 이르게 되고, Hester도 다시 옛 오두막으로 돌아와 聖女와 같이 昇華되어 여생을 살다 Dimmesdale의 곁에 묻히게 되며, 묘비에는 “검정 바탕위에 주홍 글자 A”만이 남아 있게 됨으로써 大團圓의 막을 내리게 된다.

#### IV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要約하여 結論을 맺으면 다음과 같다.

*The Scarlet Letter*를 悲劇小説이라는 관점에서 그 悲劇性을 論할 때는 거의 예외 없이 Hester를 悲劇的 主動人物로 보고, 그녀의 悲劇的 人生을 말하며, 그 속에서 人間의 悲劇的 意味나 樣相을 제시하려 하고 있다. 그 대표적 예를 들자면 R. B. Sewall을 들 수 있는데, 그는 Hester를 Antigone와 같은 強靱한 성격과 Elizabeth 시대 사람들과 같은 情熱과 個性을 갖고

47) Régis Michaud, p. 288.

48) Richard B. Sewall, p. 3.

있으며, 그녀야말로 Aeschylus 戯曲의 주인공 Prometheus 처럼 사회가 그녀에게 강요하는 因習的이고 非人間的인 “dogma”에 감연히 대항하여 자신의 價値를 주장하는 인물이며, Dimmesdale 이 죽은 후에까지 살아남아 비극적인 삶을 영위하게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처럼 Hester 를 悲劇의 人物로 설정하여 作品의 悲劇性을 말할 경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그 하나는 Hester 가 과연 悲劇的 屬性을 갖고 있는 悲劇的 人物이나 하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Hawthorne 이 作品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무엇이 罪惡을 낳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죄악이 무엇을 야기하는가?” 하는, 다시 말하면 罪惡이 人間에게 끼치는 影響, 특히 心理的 影響이었기 때문에, 作品에는 外的葛藤에 의한 사건이, Hester 가 처형대에서 恥辱을 드러내 보이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일어나고 있지 않아서, Hester 를 중심으로 한 外形的 事件을 가지고는 作品의 plot을 構成할 수도 없으며, 또한 悲劇의 人物이나 效果, 그리고 構造 등에 대한 悲劇의 보편적 특질을 바탕으로 하지 아니한 悲劇性에 대한 論議는 자칫 印象主義的 誤謬에 빠지기 쉽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作品의 悲劇性에 대한 檢討는 悲劇의 人物이나 效果, 그리고 構造 등에 대한 悲劇의 보편적 특질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悲劇의 人物이나 plot 등에 나타나는 보편적 특질은 Aristotle 을 위시하여 Arthur Miller, Francis Fergusson, R. B. Sewall, 그리고 Sussane K. Langer 의 悲劇論을 중심으로 검토하면, 苦痛(suffering)과 배움(learning)과 鬭爭(struggle)이다.

悲劇의 이러한 特質을 기준으로 하여 Hester 의 悲劇性을 검토하면 그녀는 悲劇的 人物이 되지 못한다. 첫째, 그녀는 悲劇的 人物로서 葛藤이나 苦痛을 겪고 있지 아니하며, 다만 그녀의 갈등이나 고통은 作品의 發端部인 제 3장 The Recognition 에서 최고조에 달하나 그 이후는 완전히 抑制되어 마침내는 昇華되어 버리고 있을 뿐이다. 둘째, 그녀는 苦痛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나 우주에 대하여 새로운 自覺이나 意味를 획득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녀는 처음부터 오직 자신의 信念, 즉 “自然道德秩序”를 굳게 갖고 있을 따름이다. 셋째, 그녀는 그녀가 高貴하다고 믿는 그러한 價値體系를 분명히 갖고 있으며 결코 포기하는 일은 없으나, 그것을 實現하려고 고통에 찬 투쟁을 벌이지는 않으며, 그 결과 破局에 이르지도 않는다. 다시 말하면, 그녀는 자신과 淸教徒 社會간의 對立과 葛藤의 요인이었던 淸교도의 道德律을 결코 받아들이지는 않으나, 결코 그것에 저항하여 투쟁하지도 않으며, 다만 그것을 超越해 버리고 만다.

The Scarlet Letter 가 外形的 事件을 다루기 보다는 罪意識의 人間에 대한 心理的 影響을 다루고 있는 心理小說이므로, 자연, 관심의 초점은 Dimmesdale에게 주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Hester와 Chillingworth 는 罪意識을 결코 느끼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오직 Dimmesdale 만이 죄의식의 포로가 되고 있으며, 그의 苦痛에 찬 罪意識은 끝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된다.

Dimmesdale 의 罪意識에 의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검토하면, 그의 悲劇的 面貌와 작품의 悲劇性이 적나라 하게 드러난다. 첫째, 그는 갈등의 인물이며, 고통속의 인물이다. 그

의 갈등과 苦痛은 성직자로서의 자신의 맹세와 Hester 에 대한 愛情 사이에 생겨나는 愛憎感情의 併存과 죄의식 때문에 생겨난다. 바로 이 愛憎의 感情과 罪意識이 그를 僞善者로 몰고 가며, 자신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虐待케 하여 그에게 끝없는 精神的 苦痛을 안겨주게 된다. 둘째, 그는 이러한 苦痛을 통하여 자신의 僞善은 또 하나의 僞善과 苦痛만을 낳고 있다는 사실과 자신의 Hester와의 사랑의 행위가 새로운 意味, 즉 神聖하다는 사실과 함께,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存在와 삶에 意味를 부여하고 苦痛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僞善에 찬 懺悔를 계속하거나 Hester와 함께 자신의 身分을 감추고 살아갈 수 있는 未知의 땅이나 유럽대륙으로 도망쳐나가는 길이 아니라, 오직 자신이 罪를 백일하에 드러냄으로서 僞善과 罪意識에서 벗어나는 길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셋째, Dimmesdale 이야 말로 鬪爭의 인물이다. 그는 苦痛속에서 罪意識과 僞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처절한 鬪爭을 벌이며 그러한 苦痛 속에서 그가 깨닫게 된 새로운 自覺들을 實現하기 위하여 끝없는 투쟁을 하며 마침내는 *Death of a Salesman* 의 Willy Loman 이 자신의 價値를 보여주기 위하여 죽음을 불사하 듯이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悲劇的 人物이 된다. 그는 또한 죽음을 예감하여 "By bring me hither, to die this death of triumphant ignominy before the people! Had either of these agonies been wanting, I had been lost for ever!" 라고 말함으로써 그 죽음을 통하여 지난 7년동안 계속해온 苦痛에 찬 투쟁이 승리했음을 확신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의 죽음이 R. B. Sewall이 말하고 있듯이 神을 찬미하는 宗教的 죽음이 아니라 하나의 悲劇的 破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Dimmesdale의 苦痛과 破局이 罪意識에 의하여 일어나고 있음을 주목하여 作品을 보게 되면, 悲劇의 人物은 Hester가 아니라 Dimmesdale이며, *The Scarlet Letter* 는 運命悲劇이나 性格悲劇이나 狀況悲劇과는 다른 心理悲劇이 되고 있음이 밝혀지게 된다.

Summary

***The Scarlet Letter: Tragedy of Psychology***

*Yang Kyoung-zoo*

Nathaniel Hawthorne calls his novel *The Scarlet Letter*, a "romance." But nowadays many literary critics consider this romance rather as a tragic novel and discuss its tragic qualities. Most of them argue that Hester Prinne is a tragic heroine and the tragic vision of life is expressed through her tragic life.

However, the writer of this paper cannot agree to such an idea. The first reason is that she does not show us any of the qualities of a tragic character such as suffering, learning, and struggle, except in the exposition (Chapters I, II, and III). In other words, she is not a tragic heroine. The second reason is that because *The Scarlet letter* is a psychological novel dealing with "the effect of evil upon the human psyche, we cannot find the events caused by the outer conflict and struggle between Hester and the Puritan society in New England; that is, the plot of the novel is not composed of such outer events.

When we discuss this novel from the point of the psychological novel treating the effect of guilt consciousness upon human psyche, it is inevitable that the reader's interest is given not to Hestern or Chillingworth but to Dimmesdale. The reason is that only Dimmesdale, who is captured with the consciousness of evil, is struggling to free himself from his spiritual agony and the hypocrisy which results from it, and finally plunges into death. Dimmesdale, a tragic hero, shows us tragic qualities—suffering, learning, and struggle—through his agony and catastrophe, and we can explain the tragic elements of *The Scarlet Letter* only through his tragic life. But *The Scarlet Letter* is not the work of tragedy of fate, not of tragedy of character, and of course, not of tragedy of situation. It is one of tragedy of psychology, because the tragedy of Dimmesdale is caused by the psychological process, that is, guilt consciousness.